



사람 사는 세상

자부심 강한 동구주민이 선택한 기호 2번 노무현



▲ 유세행진중 슈퍼마켓 2층에서 환호하는 주민에게 답례하는 노무현



▲ 17일 동구시장앞. 노무현 후보의 행진을 보던 아주머니 두분의 웃음이 해맑다.



6월 항쟁 야전사령관 노무현, 독재권력의 총잡이 허대령과 한판 승부를 위해



16일 유세행진때 수정시장.▲ 노무현후보의 짹막한 연설을 들으며 노점상 아주머니들이 활짝 웃고 있다.



16일 고관입구. 독재타도라는 머리띠를 두른 할아버지 목청껏 '노무현'을 연호



17일 소림약국앞. 테러가 있을거라는 정보에 노무현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청년들의 팔사이로 악수를 청하는 이 땅의 한 젊은이



▲ 17일 초량국교 유세장. 대세는 이미 결정났다.

제 6 호

1988년 4월 23일
 통일 민주당 동구지구당
 노무현후보 선거대책본부
 전화 : 47-3711~2 · 3735~6
 <선거후원 자원봉사대>
 전화 : 23-5511 · 47-4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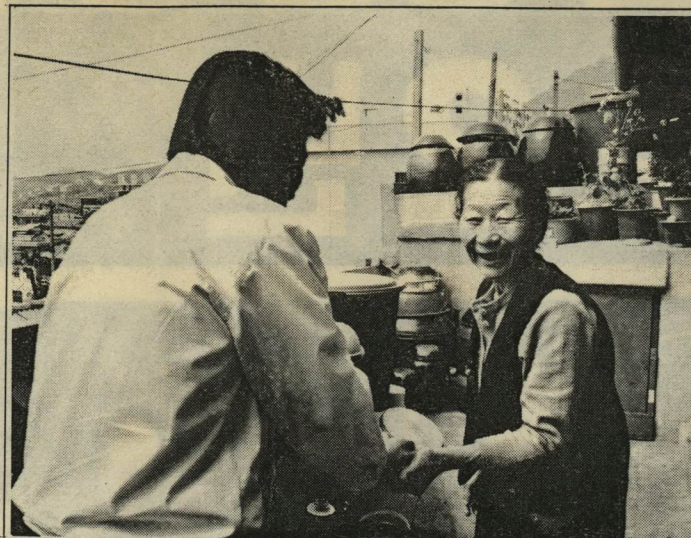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으로



점심식사 중이던
노점상 아주머니,
지나가던 노무현 후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고, 수고 많심더,
꼭 이기쇼”

라며 격려.



한많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네 할머니, 그 주름살의
깊이 만큼이나 노무현 후보의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꿈은 깊다.

노무현 후보는
어디서나 서민 대중의 소리를
커담아 듣는다.
서민 대중의 소리는
이 땅의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에의
절규이기 때문에



서민 대중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은 단호히 거부한다. 언제나
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람사는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무현 후보

세상의 어머니인 여자는 가장 많은 고통과 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자식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랑도 한없이 크지만
한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이 땅의 어머니 같은 여자의
고통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



사람답게
살기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나선
노무현 후보가 가는 곳은
웃음과 기쁨 뿐이다.
금방 머리를 감던 아가씨도,
진료를 하던 간호원도
노무현 후보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웃음으로 손을 건넌다.



민주인사 당선시켜 민정독재 막아내자! 동구주민 단결했다 노무현을 국회로!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으로!!